

월요논단



남 동 우
제주대학교 교수·예비역 해군 준장

2015년 12월 22일, 해군 제7기동전단의 주력 함정들이 부산을 출항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으로 부대 이전을 했다. 당시 필자는 제7기동전단의 전담장이었다. 기지 내부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흉망몰로 가득했고, 기지 외부는 반대시위자들의 펠릭스는 깃발과 함께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강정마을에 해군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강정마을 입구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맞이했다. 당시 참담한 심정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후 해군지휘부와 역대 전담장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황

해군, 강정마을과 함께 미래를 열다

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불신과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필자는 전역을 하고 다시 제주에 와서 보니, 제주해군기지 상황은 초기에 비해 다소 나아지긴 했으나 본질적인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간인 신분이 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지켜보며 안타까움만 더해 갔다. 그러나 다행히 올 봄에 갈등 해결의 단초가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제주 출신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으며, 문 대통령이 신임 총장에게 "제주해군기지 도민과 잘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다. 지난 8월 31일, 부석중 해군참모총장이 제주해군기지의 유지와 건설 추진과정에서 강정주민들에게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2007년 제주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가 결정된 지 약 13년 만의 일이다.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은 "해

군참모총장의 사과로 그동안 우리가 숨에 쌓아두었던 응어리가 완전히 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후손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용서는 하되 잊지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한번의 사과와 수용으로 그동안 지속돼온 갈등의 골이 치유될까? 갈등의 치유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강정 주민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와 해군의 역할이 크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정부와 해군이 강정마을에 약속했던 지역발전사업들과 이번 상생발전협약서 체결 시 논의된 주요 관심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고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청과 도의회 역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해군과 마을

주민은 물론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 진정으로 소통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 강정마을회장은 "그동안 못했지만, 앞으로는 강정주민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해군 장병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국민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군은 존재 이유가 없을뿐더러 전투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없다.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은 꾸준히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다. 10년 넘는 갈등을 치유하는데 또 다른 10년이, 어쩌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당부한다. 해군 참모총장과 강정마을회장의 대승적 결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서로 어깨동무하고 환하게 웃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협치도 좋지만 집행부 제대로 견제해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협치를 위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다. 참으로 오랜만에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2018년 7월 '상설정책협의회'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지 2년여만이어서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제주형 뉴딜 TF'를 공동 구성기로 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 등 5개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2021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제정을 통해 1차산업·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과 경제 희생 방안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도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코로나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겁니다. 특히 국가프로젝트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참여 및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제주형 뉴딜TF'를 꾸려서 공동 대응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현재 제주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가 가뜰이나 어려운데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까지 타치면서 제주가 중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 기관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양 기관이 예산 갈등과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 마찰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정책협의회를 2년만에 개최한 것만 봐도 양 기관의 관계가 어떤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 양 기관이 정책적으로 협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서 안될 것입니다.

학교 내 희귀암 유발 소재 사용 '충격'

제주도내 일부 학교가 희귀암을 유발하는 3D프린터 프린팅 소재를 사용해 충격입니다. 3D프린터가 최근 본격 보급되는 추세인데다 활용 영역도 빠르게 넓혀 가면 큰 주목을 받지만 사용 소재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조사결과 제주도 내 3D프린터를 보유한 113개 초·중·고교 중 문제의 프린팅 소재인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을 3D 프린팅 소재로 사용하는 학교는 20.3%인 23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학교의 사용방식은 ABS를 다른 소재와 혼용해서 사용 17개교, ABS만 사용 6개교로 각각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결과 'ABS'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노입자(1/1만mm 이하)를 분당 약 2000여개를 방출시킨다는 이유로

유해성이 지적된 소재입니다. 실제 올 7월에는 3D프린터를 학교 현장에 자주 사용했던 교사 2명이 잇따라 희소암의 일종인 '육종'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도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 각 학교에 3D프린터 활용 유의사항 및 안전지침을 공문으로 보낸데 이어 향후 안전 대책과 매뉴얼을 수립 예정이지만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현장 교육용 소재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학교 과학실 현실 안전 운용 실태와 과학실 내 폐시약과 수은 같은 유해 화학물질 보관 및 처리 등에 대한 점검도 기대합니다. 학교 현장에 날이 갈수록 다양한 교육 기자재들을 사용하는 추세인만큼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미만의 초미립자)를 분당 약 2000여개를 방출시킨다는 이유로

열린마당

다가오는 추석에는 안전을 선물하자



김 태 준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다. 안전은 어디서든지 강조되지만, 매년 추석연휴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행복한 추석연휴를 즐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로 초기의 설치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거,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로, 총별로 1개 이상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알려줘 화재 초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 시 큰 위력을 발휘하므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일반주택에서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갖추고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주택 화재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기간 내 고향, 친지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고향에 가지 못해 친척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내 부모님, 친척들에게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선물해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뉴스-in

'시설공단' 향방 10월 임시회서 결정날까

좌 의장 "총회서 의견 수렴"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현재 계류중인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임시회에서 다루질 전망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11일 "10월 임시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임시회 전) 전체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언급. 앞서 좌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기자간담에서 '시설공단 조례안' 상정 여부와 관련 "상정 이전에 의원 총회를 열도록 하겠다"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르겠다는 뜻을 피력. 오은지기자
제주 실업급여 대폭 증가
○...제주지역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올 하반기 해고대란 우려가 확산. 송은범기자

1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도민 수와 지급액은 1만41명·1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116% 증가. 민주시민 제주본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끝나는 올 하반기에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 김현석기자
충북교육청 격리시설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주시 애월읍 곡지리 소재 '충북해안교육원 제주분원'을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제공하기로 지난 12일 결정. 이번 결정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지만, 자가격리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제주분원을 자가격리시설로 제공해달라는 제주도의 요청에 따라 제공. 제주분원은 지난 2014년 개원해 충북지방 학생들의 체험학습, 교직원 연수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조리시설을 갖춘 콘도 16실이 존재. 송은범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강태현 (제주개발공사) 어머니 진주 강씨 인자(향년 56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12일 18시 0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9월 14일(월요일)
▶ 발인일시: 2020년 9월 15일(화요일)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101호 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남 편 강 창 호
아 들 강 태 현
남 현
※ 연락처 : 강창호 010-2937-8310
강태현 010-5000-5199
강남현 010-2959-831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비출소, 한라세육관, 시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 장 신 동 구
중양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 756-2833